백두산

24호 - 주체91(2002)년 5월 8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국방부는 F-X의 전철을 밟지 말라

MD 공대위, MD 무기 도입 반대 기자회견

국방부가 미사일방어(MD) 무기인 차세대 구축함(KDX-Ⅲ)과 차기 유도무기(SAM-X) 도입 계약을 5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전투기 F-15K 선정에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MD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DX-Ⅲ와 SAM-X 도입은 MD 참여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MD 공대위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 설명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MD 불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KDX-Ⅲ와 PAC-Ⅲ를 도입하는 것은 MD 참여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5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MD는 우리 안보, 동북아,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기에 비밀리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평화시민연대 강재숙 대표는 기자회견문 을 통해 MD 참여는 △자주국방의 길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과 민족 통일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입하려는 KDX-Ⅲ는 한국군 독자 운용이 불가능해 주한미군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며 PAC-Ⅲ는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아 효용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요격 시험에 실패해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 국민적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MD 공대위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

방부 앞 1인 시위와 항의서한 전달을 시작으로 이후 △국방부 앞과 시내 주요 지역에서 지속적인 대중집회 개최 △국방부 앞 연속 1인 시위 △범국민 서명운동 △각계 사회단체들의 연속 신문광고 게재 △사회 원로 선언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도입계약이) 결정이 되가는 시기는 5말 6월초로 잠정 계획돼 있다≫고 말하고 ≪공식적 입장이나 방침에 대해 브리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진척되는 경과를 보고 판단 규정을 절차에 맞춰 국방부에서 판단해 일정 시점이 되면 명쾌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늦어도 6월 초에 마무리 될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은 F-X 사업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동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MD 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그 동안 MD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MD 도입의 문제점과 한국의 MD 참여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경찰들에게 기자회견의 보장을 촉구했고, 경찰은 이에 폭력으로 맞대응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이승헌 국장이 경찰들에 의해 들려 경찰차에 감금되는가 하면, 자통협의 한 회원은 경찰에 의해 주먹질을 당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5/07

이문옥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1958•광주고등학교졸업
1959•보통고시 합격
1962~1972•총무처 주사공무원
1972~1991•감사원 공무원
1982•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
1990•감사원의 ≪權金 유착≫ 고발 및 구속됨
1990•기자협회 ≪올해의 인물≫
1991•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부정고발센터대표
1991•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관권개입감시위원장
•12.12군사반란자기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공동대표
•5.18학살자처벌 및 특별법제정 비대위공동대표
1992•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회장
1994•한국재가불자연합공동회장
2000~2002•민주노동당부대표
2000•민주노동당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지난 4월29일 이문옥씨(63 · 민주노동당)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1990년 감사원에 재직할 때 재벌들의 로비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폭로해 ≪양심선언의 대명사≫로 떠오른 이후보는 부패 척결을 위해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서 4년간 서울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해 시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라며 30년 공직 생활 경험을 살린 전문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서울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며 ≪양심이 살아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 중심의 서울행정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애인들의 외침은 탁상행정에 묻히고 있다≫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 시정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래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총제적인 ≪서울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참여 등 참여와 평등, 공공성과 연대성을 통한 민주주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 종합
• 제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성지에 뿌리 내린 인류의 지성
• 각국에서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와 작품 발행
• ≪금강산땜위험≫소동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날조극, 계획적인 도발
• 북남경협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못함
• 통일연대, 남북경협문제 논평
• 유사법제 법안을 폐기하라
• 민주노총 5월말 시기집중연대파업에 돌입

4 노작
•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2)

6 세기와 더불어
• 8장 1절 이광 (1)

8 칭송
• 최대의 염원

9 노동신문사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인민정권을 무기로 건설되는 사회주의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파업반대시민여론은 권력과 자본의 조작품

12 투쟁보도
• 차세대 구축함 도입반대 기자회견
• 한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
• F-X사업 권력형 비리 의혹있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고이즈미의 저의
• 80년 민주화정신 잇는 움직임 ≪활발≫
• 총체적 난맥상에 국민개탄 시국선언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3)

제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리광근무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김정기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과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중국, 로씨야, 꾸바, 싱가포르, 이딸리아, 벨라루씨, 영국, 타이, 오스트랄리아, 도이췰란드, 수리아, 스웨리예,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대북의 대표단,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로씨야꼰웨스뜨회사 총사장 위또르브로브첸꼬브, 싱가포르주재 뮨헨국제전람지도국 국장 로날드 운터버거, 이딸리아 오팀회사 총사장 엔조 라가찌,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역참사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리광근의 축하연설과 조선국제전람사 리수덕사장의 개막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전람회가 새 세기 인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앞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품들을 돌아 보았다.

이날 저녁 전람회개막과 관련한 연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성지에 뿌리 내린 인류의 지성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속에 태양의 성지 풍치가 더욱 수려해지고 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을 방문하였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만경대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많은 나무모들과 꽃씨 그리고 꽃모들을 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집무실 가까이에 포도원을 꾸려 놓고 직접 가꾸시였다는 이야기에 접한 일본과 조선과의 우호를 촉진하는 회 대표 이모또 다께오는 가지고 온 1,000그루의 포도나무를 그이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생가주변에 심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프랑스 민족교육성산하 교수 린 씨미오비움은 흰색다리아꽃과 흰색은방울꽃을 기증하면서 이 꽃들이 자주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근면하고 희열에 넘친 창조적로동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반영한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와 중국대표단들은 자기들의 지성이 깃든 여러 그루의 봇나무와 사시나무, 각양각색의 꽃관목들을,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희귀한 여러 품종의 식물들을 기증하였다.

지금까지 이 태양의 성지들에는 세계 5대륙에서 보내여 온 수천, 수만그루의 진귀한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를 내렸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각국에서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와 작품 발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와 작품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이 발행되였다.

최근 4년동안에만 하여도 《태양은 온누리를 비친다》, 《위인중의 위인》, 《인민의 위대한 아들》, 《21세기의 위대한 전략가》, 《**김정일**시대의 조선》을 비롯한 80여종의 도서들이 로씨야, 중국, 일본, 인디아, 수리아, 레바논, 뽀르뚜갈, 영국, 벌가리아, 에짚트, 뻬루 등 많은 나라에서 여러 민족어로 발행되였다.

또한 《세기의 위인 **김일성**》, 《빛나라 백두산의 태양이여》, 《붉은기수호자》, 《선군 : 정의의 검, 징벌의 검》, 《어머님의 군복》을 비롯한 670여편의 시와 노래, 회상실기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창작발표되였다.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은 도서와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숙**동지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생활력,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금강산땜위험》소동은 사실을 완전히 외곡한 날조극, 계획적인 도발

6일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발표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언제에 그 무슨 문제라도 생긴듯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에서는 미국위성으로 《촬영》한것을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언제가 《붕괴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아우성을 치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론의해야 한다는 허튼 소리들까지 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긴급조치》요, 《조사단파견》이요, 《평화의 땜》에 대한 《증축방안검토》요 하고 떠들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 지는 《금강산땜위험》소동은 사실을 완전히 외곡한 날조극으로서 우리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이다.

남조선에서 떠드는 안변청년발전소언제의 그 무슨 《붕괴위험》과 같은 문제는 애당초 제기된바도 없고 또 제기될수도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로 말하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이룩한 고귀한 위훈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한가지 건설을 해도 민족의 리익과 번영을 첫자리에 놓고 자연환경과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빛내이는 원칙에서 하고 있다.

더우기 안변청년발전소언제는 안전성과 견고성에 있어서 조금도 흠잡을데 없이 완벽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안변청년발전소언제를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우리식의 주체적인 공법에 기초하여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수력언제공사상 흔치 않는 언제구조물로 된 안변청년발전소언제의 안전성은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남이 준 《위성촬영자료》라는 거짓을 내들고 《붕괴》니, 《위험》이니 하고 떠드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 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조종에 따라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돌려세우려는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안변청년발전소의 언제건설문제를 가지고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오도된 여론을 내돌리며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안팎의 분렬세력들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번에 북과 남사이에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정신에 따라 금강산에서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나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4.5공동보도문리행에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있지도 않는 《금강산땜》문제라는것까지 들고 나온데는 외부세력의 의도적인 개입과 외세공조에 환장이 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남이 던져 주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떠드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행위로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있지도 않는 《금강산땜》문제라는것을 가지고 6.15북남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리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북남경협 회의 ≪외교통상부≫ 장관 망언으로 예정대로 개최못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 성명

북과 남은 지난 4월 5일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여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게 된데 대해 내외가 적극 지지환영하였으며 온 겨레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보도문일정에 따라 우리측은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금강산상봉에 이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제 날자에 열리여 좋은 결실을 가져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왔다.

그런데 이미 알려 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미국에 찾아 가 공동보도문의 리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 놓으면서 북남대화재개에 빗장을 꽂는 행위를 저질렀다.

최성홍의 이러한 행위는 북남사이에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엎고 우리 민족끼리는 대화도 협력도 할수 없게 훼방을 놓는 심히 엄중한 도발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이 배신적인 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엄중성에 대해 지적하고 남측당국으로 하여금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려는 립장이라면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자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4.5공동보도문리행과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전반적으로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런데 남측당국이 도발적인 언동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책임적이며 납득할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수 없게 하고 있다.

남측당국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은 이번 제2차회의가 남측당국자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 날자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는 계속 남측당국의 책임적인 조치를 지켜 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남북경협추진위 2차 회의 무산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은 6일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하여 경협추진위 2차 회의가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5월 7일부터 개최되기로 하였던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가 무산되었다.

통일연대는 경협추진위 2차 회의가 무산의 책임이 4.5남북공동보도문의 내용을 파기하는 듯한 정부의 일련의 흐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4.5 남북공동보도문은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대북강경책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좌초위기와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전쟁위기라는 엄중한 정세에서 이루어진 합의이며 남북당국자간에 화해와 단합의 기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그런데 4.5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될 시점인 지난달 23일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에 찾아가 ≪강공책이 이북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나라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남북당국자사이에 합의한 4.5공동보도문을 역행하고, 우리 민족끼리는 대화도, 협력도 할 수 없게 훼방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4.5 남북공도보도문을 이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의사와 정반대되는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대주의적 발언은 더 이상 용납되서는 안된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대북불신을 조장하며 4.5 남북공동문 이행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반대해야 하며, 4.5 남북공동보도문이 성실히 이행될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최근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을 자료로 제출하며 금강산댐이 붕괴될 것 같다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확한 조사없이 미국의 자료만을 근거로, 대북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써, 남북관계를 또다시 동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 하겠다. 4.5 남북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를 어렵게 정상화시킨 합의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기초한 정확한 근거없는 자료나 발언을 기준과 자료로 삼아, 4.5 남북공동보도문을 역행하는 현정부를 보면서 어떻게 신뢰성있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임동원 특보의 평양방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했던 정신을 되살려 4.5 남북공동보도문 이행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통일연대는 4.5 남북공동보도문을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4.5 남북공동보도문을 이행시켜나가기 위한 민족화해협력의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통일연대
2002.05.07

유사법제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에 제출된 유사법제관련 3법안을 반대하고 폐안을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달 19일 도내 히비야야외음악당에서 열려 노조원과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육·해·공·항만 관련 20개 노조와 종교단체가 주최했다.

항공안전회의 오오노 노리유키 의장은 ≪미국의 전쟁에 국민이 동원되는 유사법제를 반대한다. 평화헌법 아래 유사법제의 숨통을 끊자≫고 인사했다. 중·참의원의원들도 다수 참가해 호소했다.

각계 단체들의 발언 후 ≪이 법안을 폐안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같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유사법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올리자≫는 집회선언을 채택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회와 긴자 2코스로 나누어 시위 행진했다.

또 이날 낮에는 중의원의원회관 앞에서 ≪일본의 ≪유사법제≫(전시법제) 확립과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아시아 시민·민중공동성명≫ 찬동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소비자연맹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가 긴급 제안한 것인데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에 대해 이 성명에 대한 찬동을 호소, 5월중에 집약해 미일 양정부에 제출한다.

기자회견에는 일한네트 와타나베 겐주 공동대표를 비롯해 한국에서 박석운씨(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한충목씨(전국연합집행위원장), 이해수씨(민주노총대외협력국장), 필리핀의 코라손 발데스 파프로스씨(비핵필리핀연합)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에 대한 찬동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틀날 20일에도 유사법제를 반대하는 전국집회가 도내 시바공원에서 열려 한국, 미국, 필리핀대표들이 참가했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지난번 임동원 특사 방북으로 남북의 통일기운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사법제는 통일의 움직임에 역행한다. 일본의 반전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음악가 키나 쇼키치씨의 콘서트 후 참가자들은 도심을 시위 행진했다.

20일의 집회는 미국의 반전평화단체가 부시 정권의 전쟁확대정책을 반대해 호소한 것으로 세계 16개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서울시내에서도 이날 ≪테러방지법 저지, F15K 선정 철회, 반전평화집회≫가 열려 500명이 참가했다.

민족시보 제974호 (2002.05.01)

민주노총 5월말 시기 집중연대파업에 돌입

부산지역 20개 사업장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의헌)는 지난 7일 오전10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5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5월 한달 동안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희생없는 주5일 근무쟁취, 국가기간산업사유화 저지, 노동탄압분쇄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경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무시한채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안을 노사정위에서 전격 합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6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주5일 근무제를 국회 상임위에 상정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5월 13일 5월 투쟁승리를 위한 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장 임단협투쟁승리결의대회 개최 및 파업찬반투표 실시 △ 5월 18일 부산지역본부 전조합원 총력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시기집중연대파업을 성사시키고. 오는 26일에는 수 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여 서울집중상경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연맹 사업장인 부산지하철, 사회보험, 북부자동차학원, 해양수산연구원노조도 5월 시기집중연대파업에 같이 벌여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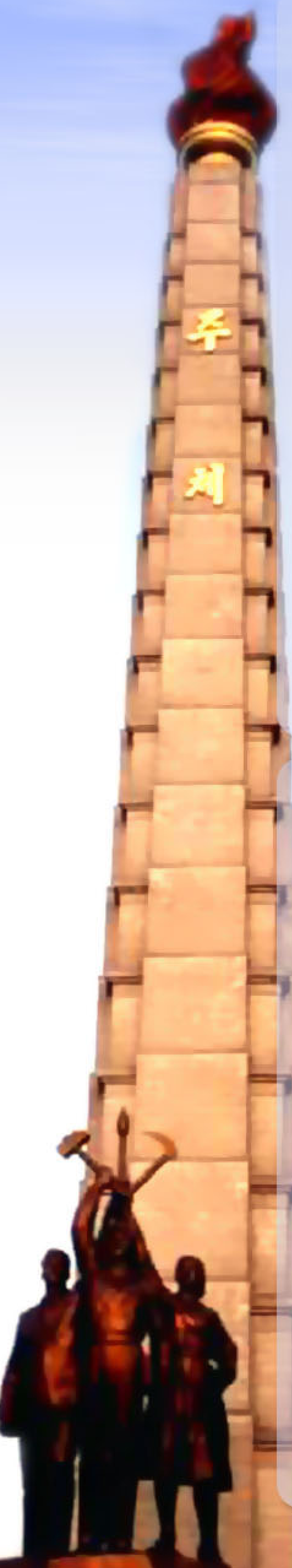
이를 위해 지난7일 보건의료노조 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8일에는 금속노조 13개 사업장이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한편 민주노총 측은 ≪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748명을 구속하고 현재도 감옥에 53명의 노동자가 있다≫며 ≪수 십 명의 수배자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게 노사평화선언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7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정권기관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81(1992)년 12월 21일



1. 인민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2)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인덕정치입니다. 인민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로 되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혁명동지로, 스승으로 대하시며 모든 영예와 행복을 인민에게 돌려주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인민을 따뜻이 이끌어주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은정깊은 혜택을 베풀어주십니다. 수령님의 인자하고 은혜로운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으며 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정치의 근본원리입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의 기본핵이며 근본바탕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강력한 혁명의 주체에 의거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정치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수령님의 영도 밑에 주체의 정치이념,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위대한 견인력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지도사상과 사회정치적 지반, 수령의 영도는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되는 요인입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좌절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이 보여준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며 남달리 불리한 혁명정세와 간고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혁명이 보여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재건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진보적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참답게 누리고 있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귀중함을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노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있으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빛나는 승리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보다 활짝 꽃펴날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정치적 지반위에 서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를 받고 있음으로 하여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권으로 되고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추동하는 희망의 등대,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2.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며 그 발전을 조직하고 조절 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기능은 전사회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고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기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은 인민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항구적인 기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심화될수록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다른 정치조직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조직들이 일정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움직이는 정치조직이라면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람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한뿐 아니라 사회의 재부를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를 수행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집단주의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사회성원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올바른 지도가 없이는 사회성원들의 단합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진행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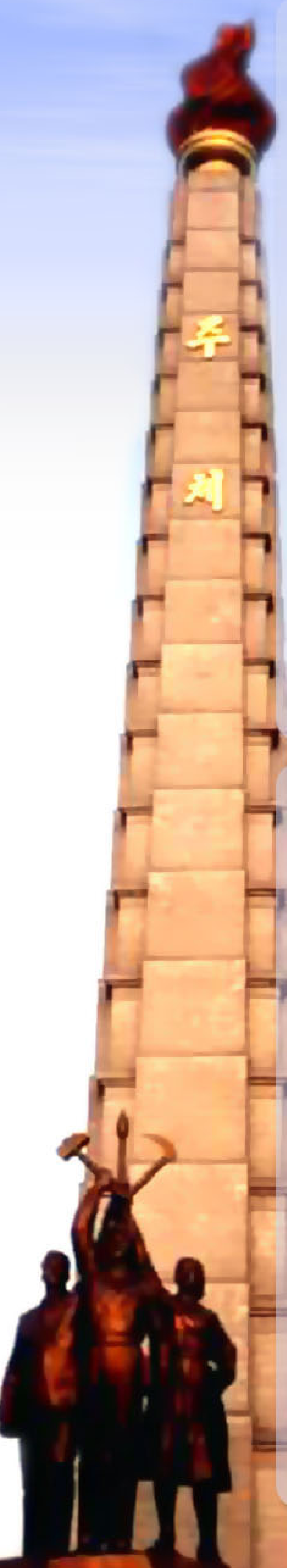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 지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개별적 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며 그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문제는 개별적 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별적 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안받침될 때 목적 의식적으로 높이 발양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 지도를 행정관료적인 것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궤변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 지도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행정명령식 편향이 나타난 것은 사회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통치체계와 방법이 극복되지 못하고 정권기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바로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정권은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며 정권에 의하여 정치생활이 좌우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어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적 권리는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사회적 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를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실현하는 참다운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 수 있습니다.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이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은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자주적 권리를 법화한 것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에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은 자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주며 인민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리의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정치적 지반위에 서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를 받고 있음으로 하여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권으로 되고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추동하는 희망의 등대,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규모의 집단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어야 하며 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관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목표와 방향을 바로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며 인민봉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사회주의적 본성에 맞게 고르롭게 높여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상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여나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진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을 생명으로 하고 있은 사회인 것만큼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가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든 것과 관련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온갖 부르죠아사상요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방건설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 반공화국 소동을 벌이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정권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군사노선의 요구대로 전군 간부화와 전군 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높은 정치사상의식과 현대적 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만들며 전민 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 전체 인민이 적들의 침략을 쳐부실 수 있는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전시에 필요한 예비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 정권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화국 정권은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당이 제시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입니다. 공화국 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반제자주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우리 인민의 이익과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입니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어 있은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줍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할수록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며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됩니다. 전체인민의 이익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만드는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이 사회를 관리하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권력기능, 독재기능을 만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이익과 안전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독재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더 악랄하고 교활하여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 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진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비사회주의적 현상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는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불량행위가 점차 자라나면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맹아적 단계에서 철저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세워 불량자들이 사회주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는 공포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불량자들에게는 공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것만큼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습니다.

인민정권은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유용하거나 탐오낭비하는 현상과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하게 벌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남을 속이거나 일을 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며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은 온갖 부정부패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1. 이 광 (1)

리광

나와 이광과의 우정은 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만청총 계통에서 온 김준이네 패거리들이 하루는 낯선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낯선 청년이 바로 이광이였다.

이광이 길림에 나타난 것을 두고 그때 우리 동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추리를 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조직선을 찾으려고 왔을 것이라는 사람, 길림일대의 청년학생운동 실태를 알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등으로 제나름대로 해석들을 하였다. 김준은 이광이 길림에 온 것은 성적으로 소집되는 교원들의 어떤 비밀회합에 참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넌지시 귀뜸해주었다.

총명하고 대범하고 과묵한 사람, 이것이 이광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였다. 그 후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 나는 그가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무르며 우애심이 지극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때 우리 동무들은 초면인물인 이광에게 홀딱 반해서 식견을 높이려면 문광중학교가 좋고 출세를 하려면 법정대학이 안성맞춤이고 혁명을 하려면 육문중학교가 제일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그를 길림바닥에 잡아두지 못해 안달하였다.

이광도 길림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연길현 고성자라는 곳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독립군 영감들의 심부름을 해주느라고 길림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청년학생들의 생활풍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전에는 이 도시에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형편이였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져서 도시가 부글부글 끓는 쇠가마 같은 인상을 준다고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이렇게 되어 이광은 길림제5중에서 얼마동안 학창생활을 하였다.

이광이 초기에 접촉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홍범도, 김좌진, 황병길, 최명록과 같은 독립군 거두들이였다. 고성자의 그의 처가에는 독립군의 한 개 지휘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반연이 되어 그는 많은 민족운동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눈썰미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며 입이 무거운 이광의 기질은 인차 독립군 영감들의 주의를 끌었다. 오동진이나 이웅이 나를 자기네 교대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아마 이광을 독립군의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았다. 이광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공부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신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는 진학의 꿈을 버리고 14살의 연약한 몸으로 가계를 유지해나갔다. 16살때부터는 완전한 호주로 가사를 도맡아 보았다. 그러다나니 학교공부도 늦어서야 하였다. 학창생활을 끝낸 그는 한동안 연길과 왕청의 소학교들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그를 본명대로 이명춘이라고 불렀다. 이명춘이 이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춘화향 북하마탕에서 교원을 할 때부터였다. 그때 북하마탕에서는 주변 8개 학교가 모여 계몽활동의 한 고리로 웅변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였는데 당시 지하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이광으로 변성명을 하고 하마탕팀 선수로 축구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광으로 부르게 되었다.

≪나에게 민족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군들이고 공산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운동이오.≫

이광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고성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내 귀에는 그 말이 몹시 괴이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 독립군 영감들이 이광동무에게 단꺼번에 두 가지 사조를 내리먹였단 말이오?≫

≪아니, 내리먹였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할까 .물을 먹였다고 하는 표현이 적중하겠는지. 하여튼 나는 그 영감들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영향도 받았고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사조의 영향도 받았으니까.≫

≪그 영감들은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들이였던게로구만.≫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방향전환을 모색했던 인물들이였다고 할 수 있지.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하면서도 슬금슬금 공산주의서적을 탐독했댔소. 우리 처갓집에 가면 방구석에 그 영감들이 보는 책이 디글디글했소. 그래서 나도 심심풀이 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퍼그나 인이 배겼소.≫

나는 이광의 손을 덥석 그러잡고 허물없이 말했다.

≪공산주의신봉자를 알게 되어 기쁘오.≫

그러자 이광은 웬일인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부정해버렸다.

≪아니오. 나는 아직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오. 맑스나 레닌이 제창한 공산주의 원리 가운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개념들이 적지 않았소. 나의 소박한 눈으로 보면 공산주의적인 이상이라는 게 어쩐지 너무 허황하게만 생각되었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주 동무는 좀 섭섭해 할 수도 있겠는데 에두르기가 싫어서 한 말이나 널리 양해해주오.≫

첫 대면이였지만 나는 이광의 그 솔직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그 솔직성이 그의 첫째가는 매력이기도 하였다. 초기의 이광은 이처럼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전환의 도상에 있었던 인물이였다. 그는 길림에 와서 우리와 접촉하는 과정에 완전한 공산주의 신봉자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한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 조직에 망라되지는 않았다. 이광이 길림으로 올 때 학전 3만여 평이 해당되는 토지문서 가운데서 3장을 저당잡히고 400여원의 노자를 마련했다는 자료도 나왔다는데 그 사실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학전이란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떼여준 논과 밭을 말한다.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광이 개인소유도 아닌 공유지를 저당잡히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객지로 떠날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 포부가 대단히 컸던 것 같다.

그가 집을 떠나면서 처남에서 남긴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장한 결의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는 만주벌판과 조선 8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정한 애국자를 찾고야 말겠다. 이 소망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부모님의 슬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맹약하는 바이다.≫

이 결의를 보면 이광의 성미를 잘 알 수 있고 그가 집을 뛰쳐나와 만주의 주요도시들과 정치활동의 중심지들을 발이 닳아빠지게 돌아다닌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이광은 대바르고 깐깐하면서도 궁리를 잘하는 사람이였다. 중국말도 동북 본토배기들 못지않게 자유로이 구사하였다. 이런 장점은 훗날 그를 십가장, 백호장, 향장의 직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서도 출신인 나는 이광을 통하여 간도의 풍습, 함경도 풍습을 배울 수 있었다. 이광은 길림에 온 후 무슨 까닭에서인지 조직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그것은 길림을 잠깐동안 들렸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으로 보는데서 온 임시관념의 작용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대신 그가 나와의 거래는 많이 하였다. 나중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도 범연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이광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은 길림에서 공부하다가 간도로 돌아갈 때였다. 출발에 앞서 나를 찾아온 그는 작별인사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였다.

≪성주, 간도로 돌아갈 때 잠깐 무송에 들려 성주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은데 그래도 일없을까?≫

나는 이광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고마웠다.

≪원, 이광답지 않게 일없을까는 또 무슨 일없을까요.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보는 게지.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럼 동의한단 말이지? 좋소! 내 결심대로 어머니를 만나겠소. 남들이 다 성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서 따르는데 난 아직 뵙지조차 못했으니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겠소. 왜 성주 어머니가 김혁이나 계영춘이 같은 사람한테만 ≪우리 어머니≫겠소. 나도 어머니로 모시고 싶단 말이오.≫

≪고맙소. 이광! 그러니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됐구만. 나와 이광은 오늘부터 친형제요.≫

≪그렇다면 잔을 찧어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국수라도 나누든가.≫

→

리광의 가족사진
(뒤줄 오른쪽이 리광)

물론 우리는 잔도 찧고 국수도 나누었다. 이광은 결심대로 무송에 들려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드리다가 왕청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그의 가족은 연길현 의란구가 아니라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광이 무송을 떠나간 후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이광에 대한 소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성주야. 이광이 오늘 간도로 떠나갔다. 내 그 사람을 송화강 나루터까지 바래주었지. 너를 객지에 떠나보낸 날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일손을 잡을 수 없구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싹싹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사람도 나를 친어머니 같다고 하더라만. 내 슬하에 끌끌한 아들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낙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겠니.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사내를 소개했다. 글세 이광이란 사람이 철주를 데리고 양지촌에 가서 아버지의 묘에 절을 하고 벌초까지 하고 오지 않았겠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너의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고 내가 아는 청년들도 여럿이지만 이광이 그 사람처럼 정이 푹푹 들게 처신하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무쪼록 너희들의 우정이 저 남산 송백처럼 변치 말고 청청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은 날은 나도 하루종일 들뜬 기분으로 송화강변을 거닐었다. 글줄마다에 차넘이는 어머니의 희열이 나까지도 감염시켰다. 어머니가 기쁘다면 나도 기쁘고 어머니가 만족한다면 나도 만족한 것이다.

이광의 출현이 정녕 어머니를 그렇게도 만족스럽게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최대의 기쁨으로 되는 것이다.

이광이 길림을 떠난 후 나는 우정국으로부터 한 장의 송금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 번 말한 바가 있다. 나에게 학비를 대준 사람들은 대부분 오동진, 손정도, 양세봉, 장철호, 현묵관과 같이 길림시내에 거주하거나 유하, 흥경, 무송, 화전을 비롯한 독립군의 본거지들에 있으면서 정의부 본부에 들락날락하던 아버지의 친구들이였다. 길림시절의 나의 후원자들 가운데는 공청원들과 유길학우회원들도 있었다. 문광중학교에 적을 두고 공청열성자로 활동하던 신영근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의 학비를 보태주었다.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그 당시 어머니의 하루 수입이란 삯바느질을 해서 벌어들이는 5-10전 정도의 보잘 것 없는 돈이었다. 하루 10전씩 버는 때라야 월 3원의 돈을 쥐는데 그 3원이라는 금액은 육문중학교가 제정한 한 달 학비와 맞먹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학비를 보낼 때에도 돈을 절약하느라고 우정국 신세를 지지 않았다. 수공료를 받아서는 한달 월사금이 될 만큼 푼푼이 모아두었다가 길림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며 보내주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정국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인편을 통해 돈을 받는 날이면 나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곤 하였다. 하나는 학비가 왔으니 망신을 면하게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월수입의 전부를 보내주고 집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었다. 사실 3원이란 돈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한끼 식사비도 될까 말까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육문중학교의 학생구성을 보면 부잣집 자식들이 과반수였다. 우리가 돈깍지라고 부른 송금 통지서들이 어떤 날은 수십 장씩 학교에 날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나처럼 송금통지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도 구경조차 하지 못한 평민집의 자식들은 공연히 어깨가 처져서 돌아갔다. 이런 때에 평민가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 중 가난한 집의 자식인 나에게 10원의 뭉칫돈이 단꺼번에 굴러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변이었다. 나는 그 송금통지서를 들고 우정국으로 가면서 송금자가 누구이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추리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런 뭉칫돈을 보내줄 만한 친지는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다. 길림시 밖의 다른 지방에서 나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10원이나 되는 목돈이 생길 리는 만무하였다. 혹시 우정국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삭갈려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송금을 내앞으로 돌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 일은 있음직할 것 같지 않았다. 송금을 받는 사람이 송금자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 우정국에서는 돈을 잘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나한테서 송금통지서를 접수한 우정국 사무원은 송금자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 오히려 내 쪽에서 취급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간막이 너머에서는 뜻밖에도 ≪이광이요!≫하는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의 나의 놀라움이란 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친구들 가운데는 이광보다 더 가까운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이광이 길림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다가 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돈까지 부쳐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광의 웅심깊은 성미에 몹시 감동되었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 집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안도에 계실 때 그는 많은 양의 첩약과 돈을 가지고 흥륭촌에 찾아왔다. 그 돈이란 그가 백호장을 하면서 다달이 모아두었던 생활비였다. 이광은 마음씨가 한정없이 고와서 남을 도와줄 때에는 뽕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것을 다 퍼주었다. 이광은 어머니의 곁에 며칠씩 머무르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를 돌봐주다가는 왕청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우리 일가의 총애를 받는 단골손님으로 되었다. 남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줄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갚아줄 힘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돈을 돈으로 갚아주자면 우리 집 밑천이 너무도 달렸다. 나는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고 민중의 충실한 노복이 되는 것으로써 나의 친지들과 동료들의 배려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광은 1929년 겨울에 나를 만나려고 길돈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1929년 겨울이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였다. 이광으로서는 때를 잘못 선택한 셈이었다.

그 대신 그는 자기가 숙박하고 있던 객주집 접대부 공숙자를 통하여 길림지방 청년학생운동 실태와 그것을 주관해온 지도핵심들의 투쟁방법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하였다. 공숙자는 접대부의 간판을 가진 여자였지만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길림시로 찾아오는 청년들과 우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간다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객주집에서의 해후가 계기로 되어 훗날 그 여자는 이광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이광의 아내 김어린녀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광은 상처를 하고 난 후에도 두고두고 그 여자를 잊지 못해 하였다. 본처와의 금슬이 좋았던 그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홀아비로 살려고까지 결심하였다. 김어린녀가 세상을 떠난 후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방에서 많은 혼처들이 줄레줄레 나타났으나 마음이 결백하고 고정한 그는 뭇여인들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광을 만나기만 하면 동무들과 함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고 병약한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장가를 들라고 설복하곤 하였다. 그의 결심을 휘여놓기란 참으로 마른나무를 비틀어서 송진을 짜는 것보다 더 힘에 부쳤다. 이광은 김어린녀의 3년상을 물린 후에야 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의 두 번째 부인 공숙자는 마음씨가 무던하고 현숙한 여성으로서 뭇사람들이 모두 탄복할 정도로 전처의 자식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었다. 전처의 자식들도 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공숙자 자신은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광은 나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공숙자의 소개로 길림 육문중학교와 길림사범학교에 다니던 운동권 청년들과 친교를 맺었다.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애국역량을 단합시켜야 한다는 것. 애국역량을 단합시키자면 그 기치로 삼을 수 있는 사상과 노선이 있어야 하며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길림조직이 이광의 가슴에 심어준 진리였다. 이광은 이 진리를 받아안고 간도로 돌아갔다. 이광의 길림행은 그의 혁명활동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변이었다. 그는 이 걸음으로 하여 일본영사관 밀정들과 만주경찰의 감시속에 들게 되었으나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따라 용감하게 돌진하였다. 추수, 춘황 투쟁은 이광이 길림에서 얻은 진리를 확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의 세계관은 이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높이에로 또다시 도약하였다. 거주지를 왕청으로 옮긴 다음부터 이광은 북하마탕이라는 곳에서 향장으로 일하였다. 혁명 그 자체가 자기 이상의 전부라고 말해온 사람이 말단 행정기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향장의 벼슬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못 흥미있는 현상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와 이광과의 상봉은 1931년 12월 명월구에서 다시금 이루어졌다. 이광은 그 때 겨울명월구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느라고 사방으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가 좁쌀 배낭에 다섯 마리나 되는 꿩을 얹어가지고 회의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역시 이광답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꿩고기와 닭고기로 꾸미를 한 간도 특유의 농마국수는 곱빼기를 청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지경으로 기막히게 맛이 좋았다. 나와 이광은 그 국수를 두 그릇씩 겸상을 하여 배불리 먹은 다음 이청산이네 집 윗방에서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이광이 우리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극진히 돌봐주고 나의 학비를 보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난 오늘 저녁 국수를 먹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소. 그 꾸미에 깃들어 있는 이광의 수고를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 길림에서 공부할 때도 동무는 날 데리고 식당으로 종종 가지 않았댔소. 이 신세를 언제 다 갚겠는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광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

≪신세는 무슨 신세. 난 그저 의연금을 내는 심정으로 성주네 일가를 도와주었을 뿐이오. 성주네 아버지야 한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 아니오. 성주도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왔소. 이런 애국자의 가정에 돈 몇 푼을 보태줬다면 그거야말로 응당한 일이지…

신세라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내지도 마오.≫

그는 짐짓 노하는 체 하면서 손으로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나는 여기에서 이광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의 성격미를 보는 것 같았다.

(내일 계속)

최대의 염원

김정숙여사와 민족통일 (민족통일 의지 · 업적 · 풍모)

새 조국 건설시기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되였다. 이것은 누가 선사한 것이 아니였다. 조국해방은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김일성**장군님을 구심으로 굳게 단합해 피어린 항일의 성전을 벌인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였다.

광복을 맞이한 겨레의 환희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산천초목도 해방의 기쁨으로 설레이는 것만 같았다.

해방 닷새만인 8월 20일 전설적 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연설에서 해방된 조국에 항일의 불길 속에서 축성된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반해 노동자계급의 당을 창건하며 노동자계급의 영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토대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시련 속에서 단련 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아들딸들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창건할 데 대한 3대과업을 명시하시였다.

이것은 해방된 조국에 새 조국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당면한 민족사적 위업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중은 새 역사 창조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항일의 전설적 여장군 **김정숙**여사님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해방된 조국에 빛나게 구현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시며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에 개선하셨다.

그러나 여사님께서는 항일의 초연이 서린 군복을 벗지 못하셨다. 미군이 남조선에 진주했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였다. 앞문으로 이리를 쫓아내니 뒷문으로 승냥이가 침입한 격이였다.

미국은 이남에서 식민지적 군정통치를 강제하면서 38도선을 남북분단선으로 정착시켰다. 이리하여 민족의 생활권인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민족의 혈맥은 갈라져 반만년의 유구한 단일민족사를 기록해온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분단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겨레와 민중이 바라던 바가 아니며 항일의 혈전을 벌여온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이 바라던 바는 더더욱 아니였다. 장군님의 전사들이 백두밀림에서 혈투를 벌이며 겨레와 더불어 바라고 바란 것은 조국의 해방과 완전자주독립이였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땅이 외세에 짓밟혔으니 이것은 나라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며 민족의 절반이 자주권을 찾지 못한 것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니였다.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면한 민족사적 대제였다. 그래서 **김정숙**여사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였어도 항일의 군복을 벗지 못하신 것이였다.

우리 조국의 완전해방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 자주독립을 성취하는 것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의 본분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절반을 외세와 반동들의 지배하에 남겨두고는 장군님의 전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책임성으로부터 **김정숙**여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통일을 열렬히 희원하시었다.

여사님께서 간절히 바라신 것은 우선 조국의 완전한 해방이였다.

여사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어 청진지방에서 얼마동안 정치활동을 벌이게 되시였다. 어느날 ≪새길신문≫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회견을 진행하셨다. 기자들은 여사님을 만나자 여성의 몸으로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 이기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다.

여사님께서는 웃으시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다만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수던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장군님의 종횡무진의 지략과 비범한 전략전술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호소하시였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조선해방이 아직 완전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조선인민대중은 더욱 희생적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사님의 말씀에서는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에 대한 절절한 소망과 그것을 기어이 이루어내시고야 말 굳은 결의가 뜨겁게 울리고 있었다.

여사님께서 절절하게 바라신 것은 또한 외세의 지배와 민족분열로 인한 불행과 고통에서 이남민중들이 하루빨리 구원되는 것이였다.

민족분열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불행과 고통은 아주 큰 것이였다. 특히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하에 있는 이남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미군정은 이남민중에게 초보적인 민주민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와 통일을 위한 민중의 진출은 가차없는 유혈적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노동자들은 일할래야 일자리가 없었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었으며 젊은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거리마다에는 구직의 철새로 방황하는 실업자들이 홍수를 이루었고 골목마다에는 유랑걸식자들이 차고 넘쳤다.

조국을 통일해 이남민중을 이러한 불행과 고통에서 하루빨리 구원하는 것이 여사님의 바람이였다.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 이남의 대표들 속에는 나어린 한 소녀가 있었다. 그는 이남의 여성애국투사의 동생이였다. 그의 언니는 서울거리에서 헤매던 동생을 북행하는 대표들 틈에 끼워 평양으로 보냈던 것이다.

여사님께서는 숙소에 나가시어 그를 만나주시였다. 한창 먹을 나이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소녀는 몹시 허약했다.

여사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정말 용케 왔다고 하시면서 이름과 나이, 서울에서 한 일을 물으시였다. 그가 행랑살이를 했다고 대답하자 여사님께서는 그를 꼭 품 속에 그러안아 주시였다.

소녀는 조그마한 양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터치었다. 서울에서는 실컷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울음이였다.

여사님께서는 소녀에게 울지 말라고, 그치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는 여사님의 두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미제의 악정아래 남녘동포들이 당하는 민족수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통일열망으로 가슴불태우시는 여사님이시였다.

잠시후 소녀는 들먹이는 어깨를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여사님께 말씀올렸다.

≪어머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강하세요?

저의 언니가 인사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언니는 저를 평양으로 떠나 보낼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온 남녘의 인민들이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얼마나 그리는지 너도 알게다. 지금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 그러나 나는 더 잘 싸워서 승리의 날 통일의 광장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옵겠다.

장군님의 품에 안기거든 이 언니의 마음까지 합하여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해다오.≫≫

여사님께서는 다시 소녀를 꼭 껴안으시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시다. 너는 참 훌륭한 언니를 두었구나. 너의 언니의 인사를 장군님께 꼭 올리마. 우지 말아! 이제는 장군님 품에 안겼으니 마음을 놓아라.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장군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싸우는 너의 언니를 돕는 일이다. 어두운 남녘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사님의 말씀 속에는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남녘의 모든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고통과 불행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절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

여사님께서는 그 소녀를 곧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시였다.

참으로 여사님께 있어서 조국의 완전자주와 통일을 이룩하고 외세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남동포들을 구원하는 위업보다 더 긴절하고 중요한 위업은 없었다. 조국통일은 여사님의 최대의 염원이었으며 새로운 투쟁좌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노동신문 - 주체91, 1월 14일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뜻 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엮으시며 강성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세차게 끓어 넘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며 그 걸음걸음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선군령도와 업적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과 혁명의 력사는 곧 수령의 력사이며 그것은 혁명의 영원한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 그 어느 위인의 전기에도 비길수 없는 불멸의 혁명실록을 창조하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오신 나날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로 주체혁명의 년대기에 빛나게 아로새겨 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펼친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며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 떨치며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한없이 고귀하고 풍부한 전통과 업적이 마련된 긍지 높은 력사이다. 최악의 역경을 헤치시며 빛나는 승리와 기적으로 수놓아 진 영웅서사시를 단신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령도업적이 선군혁명실록에 집대성되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커다란 견인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혁명의 교과서로, 흘러간 수백수천년의 민족사에도 비길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제일 가는 국보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한 성스러운 실록이다.

수령영생은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엮어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총적목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총대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으신것은 만대에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선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여 오신 혁명방식이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 나갈수 있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 총대를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 쥐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가 굳건히 수호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 조국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만대에 길이 전해 가야 할 고귀한 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주체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한 백전백승의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단순한 력사의 기록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심오한 철리를 가르쳐 주는 백과전서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유화전술에 혁명적원칙성으로 대답한 필승의 력사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혼연일체의 대풍모를 활짝 꽃 피운 일심단결의 력사도,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도 선군혁명실록에 담겨 져 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나날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우리 식의 정치체제가 확립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류례없이 간고한 환경속에서 백전백승을 떨쳐 온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을 담고 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금을 틀어 잡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서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가다듬고 투쟁과 전진의 길을 찾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 있다.

절세의 위인의 성스러운 력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앞으로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천만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선군혁명실록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의 성스러운 실록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더 없는 긍지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틀어 쥐고 나가는 충직한 군대이며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우리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풍모가 집대성되여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실록에 비껴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적풍모를 심장깊이 새기며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풍모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녀도 위대한 장군님의 붉은 기철학에 기초한 철의 신념을 지니고 계급의식으로 무장해도 총대와 같이 사소한 에누리도 모르는 장군님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며 인생관을 세워도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을 체득해 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실록을 혁명적수양의 교과서로 틀어 쥐고 나가는 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우리 혁명대오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들의 대오로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 쥐고 나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고귀한 재부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무거운 력사적과제들이 나서고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들이 겹쌓여 있지만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이 차넘치고 있다. 총대를 앞세우고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 백승의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는 선군혁명실록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민족최대의 뜻 깊은 혁명적명절들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김일성**민족의 만년국보로,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그것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선군사상을 신념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주체위업완성의 백승의 보검이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빛나게 결속되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백승의 력사가 창조될수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뼈와 살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숨 쉬는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불멸의 로작들의 갈피갈피마다에 뚜렷이 아로새겨 져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 특히 최근년간에 발표된 로작들을 자자구구 새겨 가며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갈 드팀 없는 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선군령도의 길에 새겨 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쉬임없이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 농촌들을 찾으시여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으며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불멸의 자욱자욱을 새겨 놓으시였다. 준엄한 시련을 뚫고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전진하여 온 우리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그처럼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몰라보게 변모된 우리 조국의 현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우에 새겨 진 불면불휴의 로고와 무비의 헌신성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기며 장군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는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국을 뚫고 승리만을 아로새겨 온 강철의 령장의 영웅서사시이며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언제나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큰 변혁을 이룩하여 온 기적과 위훈의 력사이다.

우리는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에 비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와 혁명적인 사업전개방식, 투쟁본때를 따라 배워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창조와 건설을 하여도 **김정일**동지식대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해나가며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닥쳐도 **김정일**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 온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는 정력적인 투사, 대담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빛내여 나가는데서 제1기수는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가장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일당백의 강군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에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체득하는것은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는데 있다. 위대한 선군기치높이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조국을 경제분야에서도 강국의 위력을 당당히 떨치는 무적필승의 나라로 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뜻 깊은 올해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끝)

≪특강≫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10회
림경수선생 - 주체91, 5월 6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정권을 무기로 해서 건설되는 사회주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은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정권을 무기로 해서 건설되는 사회주의≫ 이런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도 학습했지만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과업건설의 힘있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건설되고 공고발전되는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정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되도록 꾸렸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인민대중 자신이 자기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의 힘으로 세운 정권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의해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 생산관계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반봉건사회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나라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였고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현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당시 조성된 사회 계급관계에 맞게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고 소자산계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의 정권을 건설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정권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계급의 선행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정권은 낡은 정권을 폭파한 터전 위에 노동계급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던 정권이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정권과 사회계급적 지반의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민주주의 혁명시기의 정권을 선거를 통해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대중을 망라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 정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를 주체가 선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키는 것입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제1생명이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역사적 교훈은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활동에서의 자주성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선 정치적 자주성을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고 그를 확고히 보장하였습니다. 정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지위를 차지합니다. 동유럽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면 혁명적 원칙성과 노선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은 사회주의 위업을 망쳐

우리의 인민정권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인민대중 자신이 자기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의 힘으로 세운 정권입니다.

먹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또한, 국가활동에서 경제적 자립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적 기술로 장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기술자를 대대적으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자체의 원료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공고한 사회주의적인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자기 살림을 자기 손으로 안정하게 꾸려나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국가활동에서 또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국방공업을 창출하고 후방을 튼튼히 꾸려 자기 인민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해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주체가 선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정치활동에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다같이 옹호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고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자기활동에서 무엇보다 계급노선을 관철하는데 큰 힘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정주의자들은 그 무슨 전인민적국가론을 제창하면서 사회주의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주장하는 전인민적국가론은 적대계급의 청산된 사회,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현 단계에서 노동계급의 정권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서 국가정권의 기능을 사회적 자치에 맡기고 전인민적국가의 지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 이론입니다. 전인민적국가론의 반동성은 혁명적 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며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 적대분자들을 소생시켜 자본주의 복귀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는데 있습니다. 동유럽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국가활동에서 계급노선을 철저히 견지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또한, 혁명적 군중노선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고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활동 방식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이익을 첫 자리 놓고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들 자신이 주인이 돼서 그를 집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과 규범들을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제정 완성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해서 사회생활을 모든 분야에서 법에 규정된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국가활동에서 또한, 낡은 사회의 통치방식인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써 철저히 인민을 위해 복무합니다. 이처럼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는 노동계급과 함께 협동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다같이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로 건설되였고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서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국가관리체계와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부문, 단위에서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한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위력하며 사람들이 활기에 넘쳐 생활하는 공고하고 활력있는 사회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것처럼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건설한 것으로 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도 끄덕함이 없이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근본방도로 해서 건설된 사회주의라는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업반대시민여론은 권력과 자본의 조작품

언론은 민중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그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목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진실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파업반대시민여론은 권력과 자본의 조작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미제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강요되고 있는 살인적인 구조조정반대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자신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실제로 파업을 반대한다는 시민여론에 직면하곤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행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국민적 합의로써 구조조정의 고통과 희생을 나누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이 저들만을 생각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게 이른바 시민여론인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이른바 시민여론이라는 건 권력에 야합한 악덕업주들과 사이비언론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퍼뜨리고 있는 한갖 궤변입니다.

그것은 우선 그 여론화과정을 통해 잘알 수 있는데요. 이른바 시민여론은 신통히도 악덕업주들과 사이비언론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권력과 자본, 그에 추동하는 사이비언론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돼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죠.

실례로 기업의 해외매각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반노동자적 시책이 마치도 노동자와 노조, 관계당국과 사측, 시민과 시민단체간의 그 어떤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흐름과정을 합친 듯이 내돌리는 게 바로 시민여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여론이 철저히 권력과 자본의 어용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작, 선전되는 궤변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업반대여론 역시 어불성설인데요. 악덕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침히 짓밟고 있는 속에서 자주적 인간의 참삶을 지향하는 노동형제들이 어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강행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있은 대우차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겠는데요. 관계당국과 사측은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라며 기업을 해외에 매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를 실시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1750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적은 임금과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해고통지서는 사망통지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두 갈래의 길,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투쟁으로 자기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삶의 권리는 그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파업을 비롯해서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은 권력과 자본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노동대중의 투쟁이 결코 집단이기주의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이 노동자들의 희생위에서 재벌을 살리고 관료사회와 정치권의 부패만을 더욱 조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노동형제들의 투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형제들은 권력과 자본의 악정, 학정에 대중적 파업으로 대항한 것이고 또 절대다수 국민이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파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란 결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권력과 재벌등 특권족속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파업반대를 요구하는 시민여론이란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민중의 주장이 아니라 노동대중과 국민의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해 악덕업주들과 사이비언론이 퍼뜨린 한갖 궤변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파업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여론의 허구성을 똑바로 알고 생존과 민주민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할겁니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오직 완강한 투쟁으로써 노동자가 주인된 노동해방의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언론이 민중의 아픔, 민중의 외침, 민중의 몸부림을 외면할 때 그것을 참 언론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조선일보≫야말로 기득권층에 붙어 기생하는 매문지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언론은 떼버려야 할줄 압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6일~7일

차세대 구축함, 차기유도무기 도입반대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히견 진행

국방부가 차기전투기 F-15K 선정에 이어 차세대 구축함(KDX-Ⅲ)과 차기 유도무기(SAM-X) 도입 계약을 5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이 거세어 지고 있다.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MD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DX-Ⅲ와 SAM-X 도입은 MD 참여하려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사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평화네트워크 대표인 정욱식집행위원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평화시민연대 강재숙 대표가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DX-III와 PAC-III는 그것이 MD 무기체계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무기체계의 도입은 막개한 예산에 비해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만을 드리우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기자회견문에서는 이 무기체계가 한국군 독자 운용이 불가능해 주한미군

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며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아 효용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요격 시험에 실패해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대위측은 앞으로 국방부 앞과 시내 주요 지역에서 지속적인 대중집회 개최,국방부 앞 연속 1인시위, 범국민 서명운동, 각계 사회단체들의 연속 신문광고 게재, 사회 원로 선언, 사이버 시위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통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전에 차량용 앰프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한쪽으로 밀어붙이자 이에 기자회견 보장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폭력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자통위 이승헌 국장은 경찰들에게 사지가 들린채 연행되어 경찰차에 감금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홍근수 목사님을 시작으로 국방부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신가혜기자
민중의 소리 2002/05/07

한국, 이달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

KDX-Ⅲ · SAM-X(PAC-Ⅲ)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가 이 달 안에 차세대 구축함(KDX-Ⅲ)과 차기 유도무기(SAM-X)도입을 마무리할 경우 한국 정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MD불참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가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들 가운데, 미사일 최신 개량형인 PAC-3과 이지스급 구축함 등은 미국이 개발 ·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입한다면 한국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미 · 일 중심의 동북아 TMD체제에 편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게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MD저지 공대위)의 주장.

이들은 ≪국방부가 KDX-Ⅲ와 PAC-Ⅲ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견지해온 MD불참 입장을 패기하고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D체제에 편승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실현 뿐 아니라 주변 국들의 공격 대상에 될 수 도 있다는 것이 MD저지 공대위의 주장이다.

미국은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TMD가 이란 · 이라크 · 이북 등 테러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NMD · TMD를 ≪자신들을 향한 겨냥≫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미 NMD · TMD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이북과 중-러-북 북방 3각 체제 복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KDX-Ⅲ · SAM-X를 도입할 경우 중-러-북의 1차적 공격 대상으로 인식될 위험과 동북아 군비경쟁 유발 · 이북과의 평화적 통일 노력 등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시민사

회단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KDX-Ⅲ와 PAC-Ⅲ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독자적 운용이 어렵고 효용성이 거의 없는데 이는 결국 5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MD저지 공대위는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KDX-Ⅲ의 최첨단 이지스 방공 체계를 뒷받침할 고성능 위성과 레이더, 탄도미사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인프라를 한국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또 PAC-Ⅲ는 한반도 지형상 시간적으로 이북의 단 ·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투기의 성능과 우리 나라 공군력의 열세로 고공 비행이 힘든 이북의 항공기를 초고속 및 고공 비행 항공기 격추 목적으로 설계된 PAC-Ⅲ가 격추하기에는 부적합 △이북의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가 6분 아팎이기 때문에 이를 요격할 시간이 충분지 않음 △산악이 많고 지형이 좁은 전장의 특성상 탄도 미사일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MD저지 공대위는 또 FX사업이 국민적 관심과 비판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다는 데 주목하며, KDX-Ⅲ와 PAC-Ⅲ은 국민적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데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MD저지 공대위는 국방부가 KDX-Ⅲ와 SAM-X를 당초 예정대로 5월 중 도입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 MD참여 불가피 △한반도 평화 위협 △5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강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의 저지로 30여분간 지연됐다. 기자회견에서 앰프를 쓰는 것은 결국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하겠다는 의도로 간주된 것.

경찰과의 마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

승헌 국장이 연행되고 자통협 관계자는 경찰이 행사한 폭력에 상처를 입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30여분간의 마찰 끝에 확성기를 사용해 기자회견이 진행됐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은 쉽게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MD저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KDX-Ⅲ, SAN-X 등 MD무기 도입 전명 폐기 촉구를 요구하는 대중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을 요구하며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 변역식(평통사 공동대표), 진관(자통협 공동의장) 등 4명의 국민감사청구인 대표는 감사원을 찾았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장을 면담, 국민감사청구의 즉각 수용을 종용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장은 ≪자신이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이 아니니 자신과 면담하려 하지 말고 감사청구서만 제출하고 가라≫는 답변만을 고수, 2시간이 넘도록 이들을 민원실 소파에서 기다리게 했다.

국민감사청구인 대표 4인은 ≪전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원이냐≫며 감사원을 질책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7

F-X사업 권력형 비리 의혹있다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추가 감사요구 사항 감사원에 접수

F-X사업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최근의 권력형 비리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는 지난 4월 1일 홍근수 자통협 상임의장, 서경원 평통사 공동대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 등 5명의 대표가 제출한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추가 감사요구 사항을 감사원에 접수시키고 감사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에 접수시킨 추가감사요구사항은 △권노갑, 김홍걸, 최규선씨 등의 F-15K 로비 의혹 △F-15K 엔진선정에 따른 의혹 △F-X 사업 예산 초과 △절충교역 비율에 대한 국방부 말바꾸기 △부품공급 문제 △햇볕정책 지지대가로 F-15K를 선정했다는 의혹 등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의 권력형 비리와 맞물린 F-X 로비의혹과 햇볕정책의 지지대가로 F-15K를 선정했다는 의혹.

먼저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 대표단은 김동신 국방장관이 보잉사의 로비스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최규선씨를 만난 사실, 권노갑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미 GE사의 엔진이 지금까지 한번도 장착된 적이 없는 F-15K 엔진으로 선정된 것 등을 예로들며 F-X사업에 권력형 비리가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단은 ≪F-X사업이 이미 율곡비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며 율곡비리의 장본인들이 훗날 사법적, 국민적 단죄를 받았지만 이미 30조원의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된 뒤≫였음을 상기하고 ≪감사원이 지금 당장 F-X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햇볕정책의 지지대가로 F-15K를 선정했다는 의혹은 이미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심심치않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대표단은 ≪국방부의 F-15K 도입을 앞두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가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올리고, 북미간의 현안인 미사일 문제가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표단은 ≪정부가 일시적인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 굴종하며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라며 ≪감사원이 햇볕정책에 대한지지 대가로 F-15K를 선정했는가에 대한 여부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추가감사요구 사항을 감사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비서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감사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감사원 측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대해 박기학 자통협 정책위원장은 지난 9일 감사원에 면담을 요구하는 정식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가 오늘 아침 전화통화를 통해 ≪감사원장은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이 아니다≫며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9일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5월말의 차기 회의로 미룬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부패방지법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조항이 있어 F-X사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인가에 대한 법률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5/07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의 저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4월 21일,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참배했으나 헌화료는 개인돈으로 지불함으로써 마치 공식참배가 아닌 것처럼 분장하는 등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현직 일본총리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 시기와 형식이 어떠하든 일본정부가 제국주의 시절의 과거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참배의 배경과 의도

일본의 각 언론은 이번 참배를 가리켜 ≪기습 참배≫, ≪전격 참배≫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고이즈미 총리가 이 시기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내외의 여러 사정을 철저히 타산한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

먼저 일본국내 요인을 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갈수록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각 지지율을 어떻게 하나 만회하고 유사법제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동력으로 삼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4월 22일치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이즈미 정권 지지율이 42%에 그쳐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의 83%라는 높은 지지율과 비교할 때 무려 41%나 하락한 것으로 집권후의 최저 수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고이즈미 내각의 인기하락과 더불어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도 지난해 9월의 41%에서 26%로 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히 요구하는 일본유족회는 자민당의 최대 지원단체이다. 이번 ≪기습 전격 참배≫는 그러므로, 최근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각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8·15 패전기념일이 아닌 지금 시기를 택한 일본 집권세력의 기도는 더욱 분명해 진다.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고이즈미 정권이지만,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야스쿠니 참배를 이유로 양국관계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확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만과 확신이 그 배경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참배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신사참배가 양국관계를 훼손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나온 행동이라는 점과, 4월 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교과서 문제에 이은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헤아리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벌인 외교적 만행은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바로 다음날인 22일, 도쿄 도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한국에 대한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하는 축사를 피로했다는 것이다. 한편 올 9월에 수교 30주년을 맞게 될 중국에 대해서도 작년처럼 8월에 신사참배를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정을 앞당겨 참배하면 중국정부로부터 일시적인 반발은 유발할지 모르나 그것이 장기화되거나 파국을 가져올 리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직후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일, 일-중 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밝혀 주변국 경시의 본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위험한 군국주의 부활 기도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집요하게 전개해 온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제국주의적인 역사관으로 일관된 역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과거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 역사에 대한 미화작업은 이제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쟁범죄자들을 영웅시하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총리의 공식참배를 연례화하려는 것도 과거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 각지를 무고한 민중의 피로 붉게 물들인 그 엄청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일본정부는 지금 전쟁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유사법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날 침략과 해외팽창으로 망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간다면,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스스로 망치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라산기자
민족시보 제974호 (2002.05.01)

80년 민주화정신 잇는 움직임 ≪활발≫

5월항쟁 서울행사추진 기자회견 · 기자클럽 사진전시, 15주년 6월항쟁 기념행사위 모임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화정신계승을 위한 행사준비로 부산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7일) 오전 11시에 진행한 22주년기념 5.18광주항쟁 서울행사추진을 위한 기자회견과 6월항쟁 15주년기념반전평화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운영회의≫가 그것.

이번 두 행사는 반전 · 평화 · 자주 · 통일이라는 공통적인 구호를 내걸고 있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80년대 분출했던 민주화정신으로 현재 부시정권에 의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의 공포를 방지하고 분단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의지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준비중≫이라는 것.

기존 광주를 중심으로 열렸던 5월광주항쟁 기념행사는 전국적인 대동행사로 이뤄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 대구, 부산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다. 기념행사는 5.18관련 동지회, 부상자 등이 주축이 돼 각계 시민사회단체, 민민단체와 함께 행사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 부산과 대구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태평로1가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상석(5.18구속자동지회고문)씨는 ≪광주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5월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울행사가 마련됐다≫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군부의 총칼에 의해 20여 년을 땅속에 묻혀있어야 했던 ≪5.18기자클럽≫의 80년 광주 미공개 현장사진 전시회를 마련하기 위해 5.18기자클럽의 김인곤(전 중앙일보 기자)씨와 접촉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종묘공원(종로4가 국악정)에서 기념식, 문화예술행사, 사진전, 참석자 헌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5.18기자클럽≫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 2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5.18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앙일간지 기자들의 모임인 기자클럽은 소장하고 있던 사진 속의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아 ≪5.18역사기록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http://cafe.daum.net/518photoclub)에서 4월 2일부터 사진공개를 하고 있다.

서울기념행사 상임행사위원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의 일대전환을 5월 광주의 정신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중생존권의 절박함과 대통령 친인척과 연루된 각종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 · 인권 · 평화의 상징인 오월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서울행사에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6월 항쟁기념행사도 한창 준비중이다.

임시운영회의를 가진 6월항쟁기념행사준비위(가칭)는 오는 15일 향린교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거쳐 공식출범선언을 할 계획이다. 또 준비위는 월드컵개막 전에 기자회견을,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5월말 6월초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항쟁15주년 기념식을 비롯 ≪2002인 시국선언≫, 시민달리기대회, 자료전시와 음악회, 인터넷으로 만나는 6월항쟁기념관 개관(www.610.or.kr),국제평화포럼, 반전평화국제선언대회,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개선과 UN이주민협약 비준 촉구 국제캠페인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6월 사랑방 김학규 사무국장은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전평화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며 6월항쟁의 현재성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취지를 밝혔다.

또한 ≪월드컵 기간과 연계한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연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5/07

총체적 난맥상에 국민개탄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참여연대 박상증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인사 백 여 명은 6일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 비리와 집권 말기 총체적 난맥상을 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성 · 종교 · 시민, 민중단체 · 법조 · 예술계 인사들은 김대중 정권의 각종 게이트와 측근 비리로 인해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한 간접 사과가 아닌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공공부문 민영화와 테러방지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차기 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이수호 위원장과 여성연합 이오경숙 공동대표가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척결에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여 홍걸 씨를 비롯한 아들의 귀국과 검찰 수사 요구 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옷로비 사건과 4대 게이트, 아들 문제까지 이른 데에는 검찰개혁의 부재와 국정원 ≪경제단≫의 이권개입, ≪빈껍데기 법≫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는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커넥션을 답습하고 재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방적 발전소 매각 절차 강행과 발전 노동자 대량 해고 경찰병력의 과잉진압과 테러방지법 제정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빗장을 굳게 닫아 건 청와대의 담장 바깥에서는 낡은 독재시절 공권력 횡포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 대다수의 반발을 무시한 F-15K 구매강행은 ≪자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자주적 외교역량을 배가≫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탈당 선언과 관련, 한나라당의 정국돌파와 국면전환용 탈당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이 시점에서 탈당은 정상적인 조치이며, 하루 속히 특검제 도입과 내각 투명화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국 선언장에는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세철 교수, 교수노조 김상곤 사무총장, 임옥상 화백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이 해외공관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 제지되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안된다면 신문로까지 허용해 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원로인사들을 막은 경찰을 보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성유보 공동대표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착잡하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전의 자신의 일은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7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3)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주체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4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각각 주체 75(1986)년과 81(1992)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에서 혁명의 주체와 자주적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자주적 주체는 아닙니다. . . .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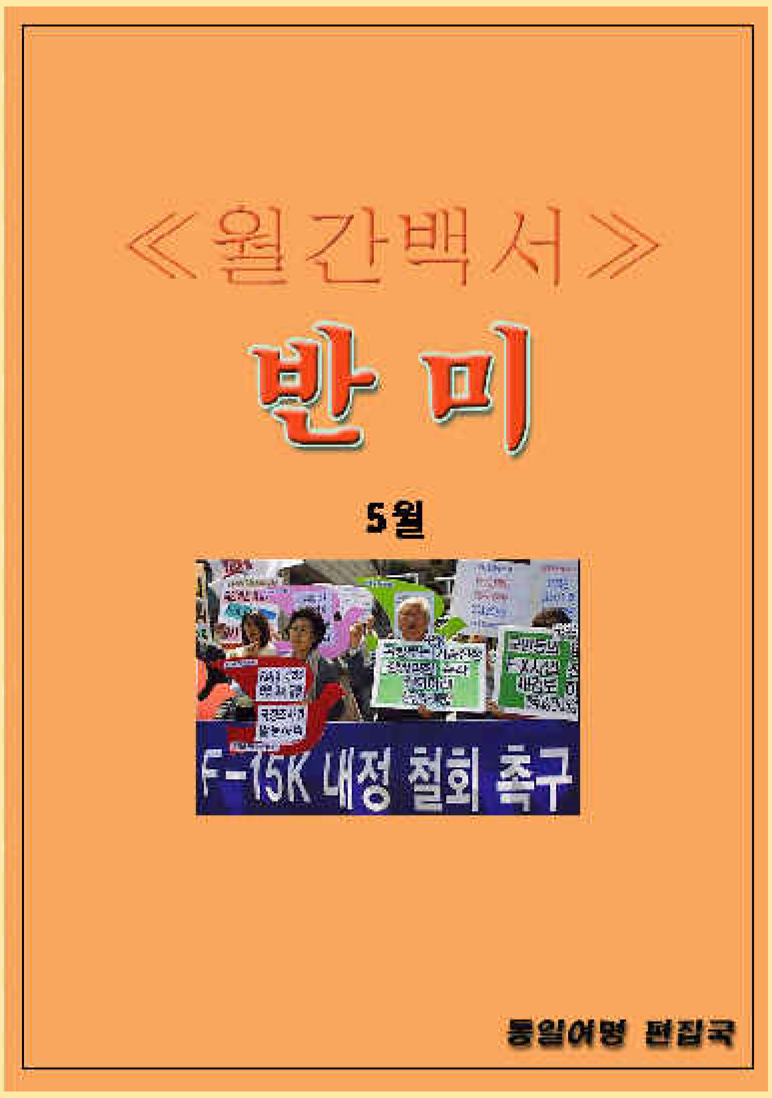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포함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혁명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강점한 뒤에 혁명기지까지 침략하려는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민족해방혁명의 주체는 신식민지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

→

광 고



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혁명이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혁명이 신식민지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신식민지에 한정된 주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또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로 통일된 주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그리고 혁명의 주체와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구별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식민지민중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혁명의 주체는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단결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김일성**주의에서는 이 통일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주체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자주적 주체도 역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하는 혁명이므로, 그 혁명에 참여하는 인민대중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모두 혁명의 주체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전선의 일원인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노동계급의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통하여 혁명기지의 인민대중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강령 아래,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연대・집결시킴으로써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하여 그 통일체와 통일전선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첫째, 조선혁명도 하나이며 조선혁명의 주체도 하나이다.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서 하나이며 조선혁명의 주체는 혁명기지와 식민지, 북측과 남측의 민중을 모두 포괄하며 하나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전국적 범위의 혁명이므로 그 주체도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측지역에 한정하는 지역혁명으로 규정하며 그 주체도 남측민중만으로 한정하는 견해는 교정되어야 한다.

둘째,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자주적 주체이다. ≪혁명의 주체≫와 ≪혁명의 자주적 주체≫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혁명의 주체≫는 역사의 주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여기서 혁명이란 노동계급의 수령, 당이 영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만이 아니라 노예혁명, 부르조아혁명도 포괄된다. 한편 ≪혁명의 자주적 주체≫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자주적 주체≫와 엄격히 구별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혁명의 주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혁명의 주체≫란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는 개념에서 ≪자주적≫이라는 개념이 생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째, 식민지민중도 혁명의 자주적 주체이다.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혁명기지민중만이 아니라 식민지민중도 혁명의 자주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민중≫으로 규정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전위조직과 전위조직을 통해 수령의 영도를 받는 식민지민중도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민중과 전위조직을 이어주는 지역통일전선이나, 식민지민중과 조선노동당을 이어주는 (지역통일전선이 통합된) 전국적 통일전선이나 모두 본질상 인전대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든 수령, 당, 인전대, 민중의 자주적 주체로 되는 것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자체가 노동계급의 수령과 혁명적 당에 의하여 영도되는 혁명이므로 그 주체의 일부인 식민지민중도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는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열가지 논제≫처럼 ≪수령과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결합된 민중≫으로 좁게 규정한다면 오직 혁명기지의 민중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월간백서≫
진보정당
5월

통일여명 편집국

≪월간백서≫
학생운동
5월

통일여명 편집국